광남일보

조간 제 8034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음력 1월 11일)

무안공항 7월 재개항 '속도'…유가족 협의가 관건

李대통령 "신속 협의" 지시…정부, 상반기 개항 시사
유가족 "생명과 안전의 가치 최우선…절차 추진해야"
강기정 시장,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등 대책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장기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논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하면서 멈춰 선 서남권 하늘길 정상화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됐다. 전남도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전제로 7월 재개항을 목표로 정부·공항공사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2·10면

재개 시점은 결국 사고 지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처리 문제를 둘러싼 유가족 합의에 달려 있다. 해당 시설의 철거·재설치 공정이 마무리돼야 공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개항 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등 보완 대책을 공개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판단과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무안공항 장기 폐쇄로 인한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보고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하루빨리 다시 여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현장 보존 등 유가족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재개항 일정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안공항은 2024년 12월 29일 참사 이후 수습 및 조사 절차가 장기화되며 3개월 단위로 폐쇄 기간이 연장돼 왔다. 지금도 활주로 공사 등을 이유로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국제선 이용 불편이 누적되면서 조속한 재개항 요구가 이어졌고, 공항 재가동 전까지 광주공항을 임시 국제선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7월1일)에 맞춰 무안공항을 조속히 재개항하고, 그 전까지의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지역민의 공항 접근성 개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이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이동 불편의 누적이 있다.

2025년 기준 광주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한 시민은 약 50만명, 김해공항 이용객은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 버스와 KTX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대기 시간을 포함해 6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시간·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수습 등으로 인해 1년 넘게 하늘길이 닫히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정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필요한 행정 지원과 협의를 즉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을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사고 지점 안전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사고 이후 무안공항은 로컬라이저를 철거하고 충돌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질로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반대편 로컬라이저는 개선을 마쳤지만, 여객기가 충돌했던 로컬라이저는 유가족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보존을 요청하면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유가족과의 협의가 이뤄지는 즉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준비를 진행 중이다. 공사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6월 말 준공이 가능하면 7월 재개항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유가족 측은 재개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무안공항 개항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담보된 재개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과 임택 동구청장, 김성 장흥군수 등이 5극3특시대 자치분권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영광·장성·강진, 합계출산율 전국 1·2·3위 쾌거

전남 8개 시군 상위 10위… 도, 1.1명 3년 연속 1위
출생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원 등 전주기 지원 효과

'영광 1.79명, 장성 1.68명, 강진 1.64명 등.'

전남 3개 군이 2025년 합계출산율 전국 1·2·3위를 휩쓸었다. 특정 시군의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도 전반의 지표 개선 흐름 속에서 상위권을 형성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관련기사 19면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 결과, 영광군(1.79명), 장성군(1.68명), 강진군(1.64명)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상위권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함평·장흥·광양·보성·고흥 등 5개 시군이 추가로 전국 10위권에 포함되면서, 전남은 모두 8개 시군을 상위권에 올려놓았다. 나주·곡성·화순 등도 1.0명을 넘어섰다.

도 전체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전년(1.03명)보다 0.07명 상승했다. 출생아 수는 8731명으로 전년 대비 506명(6.1%) 늘었다. 전남은 이로써 3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에 걸친 지원정책을 꼽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에 연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가임력 검사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고, 산후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6887명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2022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자는 5559명에 달했다. 출산 이후 장기적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도 시행 중이다.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의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3·1절 기념식 광주서 전남 시군 함께 한다

내달 1일 시청 시민홀서

광주에서 열리는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전남 22개 시·군의 도민도 함께 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22개 시·군의 도민들이 영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 광주와 전남이 역사적 뿌리를 함께해 온 공동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3·1운동의 연대와 자주정신을 광주전남 통합의 가치로 확장하는 의미를 담는다.

영상 상영에 이어 기념식장에서는 광주시민도 독립선언서를 직접 낭독, 함께 계승해 온 독립의 정신을 되새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3·1 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전 과정은 광주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민의례 중 애국가는 폐교 위기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가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학생들과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 제창한다. 기념공연에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해 '대한이 살았다',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며 자주독립의 의미와 광주·전남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회원모집 안내

(단위:백만원)

구 분	분양금액	구좌	회 원 특 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지정회원 위임시 70%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일 1회)
VVIP (B형)	700		- 회원없음. 무기명 1매, 골프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 (1회 4인,1팀 기준 / 월 5회 소멸형 / 1일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명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1일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멸형 / 1일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명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멸형 / 1일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syyoon1@happinesscc.co.kr

• 골프호텔 객실

- 2 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HAPPINESS COUNTRY CLUB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